



해경스님의 정전심기

법화경 ◎ 견보탑품 제11

허공법회와 진리는 하나

이 '견보탑품'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허공회(虛空會)라는 것과 보배탑 안에 여래의 신체가 흩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안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허공회에 관해 허무맹랑하고 꿈 같은 이야기로서 믿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법화경>이 드라마로 엮여져 있음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이다. 허공회는 가능한 모든 지각과 감각 기능을 총망라한, 총지성적인 의식을 통한 상상에 의해 시간과 공간을 상호 관통케 하여 체험하도록, 즉 그 속에 몰입하여 감지하도록 극화(劇化)한 것(의식)을 통한 이해를 배제하고, 다시 말해 분별을 버리고 오직 순박한 마음으로 지혜의 문으로 들어오게끔 의도된 것(의도)으로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믿음도 없이 인간의 때론은 지식만을 가지고 이 무

습(相)을 가진 부처님이 아니라 다만 '진리 그 자체' '진리의 완전한 모습'을 인격화하여 이룬 것이다. 즉 보정 세계(寶淨世界, Ratnavis-raddhalokadhātu)란 어머니의 태내(胎內)라는 말인데 그 태내에서 인간이라는 자연현상이 출현했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불성(佛性) 즉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왔음을 일컫는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데 이 부처가 된다는 성질이 왜 진리인가 하면, 진리의 성질은 외향성(外向性) 또는 향상성(向上性)이기 때문에 불성이 바로 진리라고 한다. 그런데 불성이 바로 진리 그 자체라든가 또는 진리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해도 그 당시의 인도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부처님으로 인격화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

'다보여래=완전한 진리' 인격화 법화경 사상통일 最上乘 법문

구정정한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자기의 작은 잣대로 가능하여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짓인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믿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마땅이며 부처님과의 대화의 공간이다. 이 대화의 공간 밖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설명하려 함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에 지나지 않는 어리석은 소행일 뿐이다. 선정(禪定) 즉 삼매(三昧)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근(信根)이 필요한 것이다.

허공회 즉 허공법회란 하늘에서 법회를 가졌다는 것이니 '하늘'은 인간계를 떠난 이상(理想)의 세계를 말하며 '땅'은 인간과 가장 밀착된 현실의 세계(현태)는 땅은 무명을 말하고 하늘은 제1의공(第一義空) 즉 진리를 뜻한다고 함. 석존께서는 보배탑의 주체는 아득히 먼 동방 즉 과거의 세계에 오신 다보여래(Prabhuta-ratna)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아득히 먼 동방의 부처님'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아득히 먼 과거에 출현하신 부처님, 즉 다보여래는 실제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모

하여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이다. 그런데 이 진리는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 덩어리로 통쳐서 통일된 모습으로 상징한 것이 바로 다보여래이다. '많은 보배를 모은 여래' '많은 불성을 한데 모은 것, 즉 사람'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래의 전신(全身), 즉 여래의 신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안치된 의의는 무엇일까?

불전(佛典)문화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반열반(般涅槃)에 드신 후, 그 유골(佛舍利)은 재가 신도인 여덟 부족들에게 분배되어 여덟 지방에 모셔졌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래의 신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라고 하여 일방적인 전승(傳承)을 부정하고, 영원히 가르침을 살리는 부처님의 출현이라는 복선(伏線)을 깔고 있다. 아무튼 <법화경>은 진리 그 자체 내지 모든 사상의 통일 즉 일승(一乘)이라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 경전이다. 최상승(最上乘)의 법문이 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무설정사 조설

그러나 불비에 짓고 있는 모란을 완상(玩賞)하고 있는 노스님을 가까이서 뵈고 있거나 일본의 일휴(一休) 선사가 남긴 일종계가 생각났다. '심년동안 꽃그늘 아래서 부부연약 잘 지켰으니 한 가닥 풍류는 무한한 정취여라. 그대 무릎 베고 이 세상을 하직하니 깊은 밤 운우 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十年花下芳塵 一段風流無限情 惜別枕頭兒女膝 夜深雲雨約三生)'. 일휴스님의 이 시를 읽는 순간 한 생을 마감하면서 살아온 나날들을 한바탕의 풍류로 보았던 애증의 정서가 마냥 좋게만 느껴졌었다. 죽을 앞에서 풍류를 즐겼던 선사의 마음자리가 불비 오는 날 모란을 바라보는 노스님을 목도하면서 새삼 맛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다.

"뉘시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전화 드렸던 기자입니다."

스님은 모란에서 눈을 거두며 절 마당 앞에서 서 있는 불청객을 맞으셨다.

"아, 그래? 오지 말랬잖아. 비도 오는데 괜한 걸음을 했구먼. 나는 아무 할 말도 없는데..."

하지만 스님은 반쯤 열렸던 문을 열어 젖으며 불청객이 들어갈 공간을 넉넉하게 내 주었다.

"남비가 참 잘 옵니다. 스님께서 꽃을 감상하시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아서 잠시 서 있었습니."

"공상할지 마시게. 다 늙은 사람이 무슨 꽃구경이겠는가. 그저 방이 답답해 문을 열고 앉아있었던 게지. 오늘따라 시구들이 다 외출을 했어. 그건 그렇고 무슨 불일이 있어 여기까지 온 건가?"

"좋은 법문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법문이라..."

스님은 한동안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다. 절에는 스님 혼자 있었고 동네는 조용했다. 때문에 스님이 입을 다문 동안에는 사투사투 불비 내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혹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에 무정설법(無情說法)을 다 들어버리고 오도송을 읊어 냈던 소동파(蘇東坡 · 1036-1101 · 당송 8대가의 한사람)처럼 불비 소리나 실컷 듣고 가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밀려왔다.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무정설법은 커녕 고한치는 듯한 고성에 친절한 법문을 들려주어도 알아들을 귀를 갖지 못한 탓에.

정말 스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조금해진 마음마저 '그냥 앉아서 있어보자'는 배양으로 버릴 때까지. "스님, 저는 아직 공부가 얕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독자들을 위해 좋은 말씀을 내려 주십시오. 초파일도 다가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고마감까지 지엽두에 돈 고백을 꿰뚫어 보셨을까?

"나는 법문을 할 줄 몰라. 젊은 시절부터 생각하는 걸 말로 만들어 내는 것에는 소질이 없었어. 거기다가 이제 늙어서 생각이 갈뻘갈뻘 끊어지니까 말하는 것도 맘대로 되지 않아. 남도 굳은데 여기까지 왔으니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두어 가지만 물어



◇보림사대웅전 앞에 모란이 한껏 베풀어있다.

"나쁜 일이면 범치 않는다"



◇나쁜 일만 줄이면 행하지 않는 것이 삶의 기본 자세라고 강조하시는 창조스님

참한 대답은 기대하지 말고"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스님을 바로 볼 수 있었다. 골 깊은 주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지만 젊은 시절엔 무척 건장했을 풍모였다.

"미수이신데 건강해 보이십니다."

"또 공상스런 소릴 하는군. 껌테기는 그렇게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아. 큰 병은 없지만 정신이 자주 끊어지니 이보다 더 큰 병이 어디 있겠는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정진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볼 수 있어. 어느 하나가 허물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 끝나는 거야. 병원이니 드나들면서 부질없는 목숨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야 목숨 불어 있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욕심이지만 한편으로는 잘 죽을 준비도 해야 하는 거야. 아무 준비 없이 죽는 것은 비참한 노릇이야. 그렇게 죽으면 좋은 내생

을 기약할 수도 없어."

침묵 뒤에 터져 나오는 사자후. 불비처럼 자본자본 이어지는 스님의 이야기는 죽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발칙하게도 스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사실, 일휴선사의 임종계를 떠 올리는 순간, 비에 젖는 모란을 바라보는 노스님으로부터 삶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짙게 스쳤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나는 참회를 하고 있어.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생에서 지은 업장들을 녹이길 발원

한껏 부풀었던 모란이 불비를 맞고 있었다. 아득했던 모란. 창조(昌祚 88세)스님은 똑똑 빗물 굶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불비와 모란 그리고 미수(米壽)의 노스님. 그 것 기척도 못하고 서 있었다. 모란을 보면서 '모란이 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요' 라는 김영림의 시 구절을 떠올렸다.

하고 있지. 참회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해야 하는 성스러운 것이지만 이렇게 놓고 보니 더욱 절실해. 그렇다고 내생(來生)에 좋은 몸 받고 싶거나 좋은 곳에 태어나길 바라는 것은 아니야. 그것도 탐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을 안 내는 것이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새로 사는

변화 대응 방편 사 불성·본래심·법

죽음은 새로운 삶

길로 접어드는 전환점에 불과하다는 큰마음을 가질 때 죽음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

갑자기 스님은 말을 끊고 일어섰다. 서양에서 작은 상자를 내리더니 종이문지를 뒤지다가 한 장의 작은 종이를 꺼내 놓았다.

수호금의 고환신(雖好錦衣故換新) 기본상쾌본래인(氣分爽快本來人) 근수복혜비한사(勤修福慧非閑事) 응비백년신후신(應備百年身後身)

"입은 웃 좋다 해도 언젠가는 갈 아입고

달마도 배우는 정각사 '화엄대학' 수강생 모집안내 (서울 경기 남부지역 : 안양 · 의왕 · 수원 · 안산 · 군포 · 사당)

화엄도량 정각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하여 신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화엄대학」을 개설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서양에서 신 지식인은 불교 배우기에 대단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이 신 지식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 개강일시 : 6월 첫째주(6월 3일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2. 개설과목 및 강의내용 (교수진 소개)
 - 1) 참선 수행반 : (연담 거사님 매주 월요일 7시 30분 ~ 9시) 참선 경력 30년의 베테랑 연담거사와 함께 하는 '나 자신에게로의 여행'선 수행의 기초 이론, 앉는 법, 화두 드는 법, 선종사, 禪師어록 등
 - 2) 경전 연구반 : (정엄 스님 매주 수요일 주간반 11시 30분 / 야간반 : 밤 7시 30분 ~ 9시) 동경대 문학박사 정엄 스님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경전 이야기 천수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등 대승경전 및 율전 등
 - 3) 기초 교리반 : (정엄 스님과 철학박사 허정희 선생님, 매주 수요일 2시 30분 ~ 4시) 왕 초보도 쉽게 배우는 불교 이야기 사찰 참배법, 기초 수행법, 예불문, 반야심경, 불교와 전통문화 등
 - 4) 노래 음악반 : (장연수 선생님 목요일 2시 ~ 3시 30분) 장연수 선생님께서 음치도 가수로 노래 잘하는 비법을 특별 공개함. 발성법, 창법, 악보 보는 법, 흘러간 노래, 최신가요, 가곡, 찬불가 등
 - 5) 요가 체조반 : (장연수 선생님 목요일 4시 ~ 5시) 원년의 보디빌더 장연수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합니다. 식단편성, 요가이론, 자세, 건강체조, 호흡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
 - 6) 요가 명상반 (야간) : (임승택 선생님 매주 목요일 밤 7시 30분 ~ 9시) 정통 인도 요가를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개발한 재미있는 요가명상
3. 수학기한 : 3개월 과정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 수 강 료 : 한 강좌당 3개월 3만원 (3강좌 이상 수강하시는 분은 분납도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지스님이나 종무소 031)398-8001에 문의바랍니다.
 E-mail : so0113@yahoo.co.kr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 2동 1138-1 거성 3차빌딩 6층 (우 435042)
 위 치 : 산본 중심상가지하철 4호선 산본역 앞 주택은행과 시내미극장 중간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할리먼트가 6배(특 할리먼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달놀이, 방생)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2) 2266-2634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 2263-2638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